

일본 순사들도 베지 못한 신목의 느티나무

| | | | | |
|---|------|---------|---|-------------------|
| ❦ | 지정번호 | 봉화-11-1 | ❦ | 경북 봉화군 춘양면 |
| | 지정년도 | 1982 | | 서벽리 산 237 |
| | 관리기관 | 봉화 | | 37° 00' 28.29" N |
| | 수령 | 639년 | | 128° 50' 02.09" E |
| | 수고 | 27m | | |
| | 흉고둘레 | 6.1m | | |



독립운동의 상징으로 남아있는 보호수(봉화-11-1) 느티나무는 10여 명의 학생이 전부인 서벽초등학교 운동장의 가장자리에 자리하고 있다. 느티나무는 나라를 지키고 되찾는 데에 큰 역할을 한 특별한 나무이다. 느티나무 앞에는 국가보훈처의 현충 시설로 지정된 항일의거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느티나무의 나이는 639년으로 기록되고 있다. 나무높이는 27m, 가슴높이둘레는 610cm, 밑동둘레는 810cm 정도이다. 나무갓은 너비가 20m 정도이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항일 의거와 관련하고 있다. 서벽리는 일본의 국권 침탈에 맞서 항쟁이 치열하였다. 당시 서벽리 연합부대는 1908년 5월 봉화군 내성을 공격하러 가는 길에 고목의 느티나무 옆을 지나다가 일본군 정찰대를 발견하였다. 지금은 느티나무가 한 그루뿐이지만 당시에는 느티나무 30여 그루가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었다. 지역의 의병 부대는 잠시 느티나무 숲속으로 몸을 피하고 일본군 정찰대를 공격하여 수십 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다. 당시의 느티나무 숲이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사실상 진지 역할을 한 것이다. 1919년 4월에는 서벽리의 독립운동가들이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면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제 순사에 잡혀 고초를 겪었는데, 그 장소가 느티나무 앞이었다. 일본 순사들은 울창한 숲을 이루던 느티나무 여러 그루를 밑동까지 모두 베어내었지만 보호수의 느티나무는 원줄기의 절반밖에 베어내지 못하였다. 당시 순사에 의하여 베어지고 찢겨나간 원줄기는 현재 총 전재로 메우는 처치를 한 상태이다. 당시에 일본 순사들이 보호수의 느티나무를 베어내지 못한 이유는 마을의 신목(神木)이라 건드리는 것이 불편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신목을 잘라내면 뒤따를 민심의 동요와 반발을 두려워했을 것이다. 그리고 당시에는 성황당이 함께 있었으므로 분위기에 압도당하였을 수도 있다. 느티나무는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도 건강하게 살아남았다. 지방도로와 인접한 학교 모퉁이에 있는 보호수 느티나무는 언제나 마을을 지켜주는 신목이었고, 지역 독립운동의 상징이었다.